

## 봉행사

올해는 우리민족의 자람이며 세계최고의 목판 예술품인 대장경을 판각한지 1천년을 맞는 해입니다. 고려 현종 2년 때인 1011년 거란의 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의 등불같은 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서원으로 대장경을 조성하였고, 몽고군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다시 조성하여 1251년 현재의 팔만대장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날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무려 2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선조의 피와 땀, 그리고 염원과 정성이 깃든 우리민족의 정수(精髓)이자 인류 정신문화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경 판각 1천년을 기념하여 오늘 고불법회를 봉행하는 묘향산 보현사는 팔만대장경 판본의 일부가 전하고 있고, 1937년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인정한 6793본 전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시에는 보현사 뒷산에 있는 금강굴에 안치하여 참화를 입지 않게 하였고, 지금은 팔만대장경 보관고를 만들어 대장경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원의 민족고전 연구소를 통해 고려대장경 해제본 25권을 발간하는 등, 대장경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은 남과 북을 넘어 우리민족 모두가 함께 하며 다르지 않습니다.

대장경은 평화를 향한 염원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경을 조성하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단결할 수 있었으니 우리에게 고려대장경은 단순히 불경을 새긴 것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요, 합심과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장경의 판각 1천년을 맞아 이제 다시 남과 북이 합심하여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를 어느때 보다 더욱 원활하게 하여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대장경의 정신을 더욱 더 우리 민족이 서로 나누고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이 법회는 대장경 판각 천년이라는 민족의 경사를 맞아 남북이 함께 봉행했다는 것을 부처님께 알리는 법회인 동시에, 남과 북의 불교도들과 이웃종교의 대표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고하는 법회이기도 합니다. 이 법회를 시작으로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묘향이란 진기한 향이란 뜻으로 불경에서 바람을 거슬러 멀리 퍼지는 빼어난 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묘향산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묘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바람을 거슬러 널리 퍼지는 향처럼, 민족의 합심과 소통을 이루는 미묘한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경의 조성을 통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앞길에 불은(佛恩)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9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